

지난해부터 유행처럼 퍼진 창조경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창조경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직원들 스스로 일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 기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에듀나비코리아(대표 이정일)는 이러한 창의적 기질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사업준비를 마치고 올 1월에 교육정보 IT(Learning+Technology) 비즈니스에 도전한 교육벤처 이정일 대표를 만나본다.



체계적인 학습도우미 전자플래너 솔루션 개발

에듀케이션(Education)과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합성한 사명으로 2008년 1월에 설립한 에듀나비코리아는 교육정보 벤처기업. 현대전자 전자사업부에서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이정일 대표를 중심으로 팡택&큐리텔에서 상품기획과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정화민 부사장, 웅진 미디어 대표 출신으로 교육사업 전문가인 김영재 이사 등 핵심멤버 3인이 의기투합해 창업했다. 이 신생벤처는 연혁은 매우 짧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에듀나비코리아는 지난해 7월 '휴대용 전자플래너'의 제의 방법'에 대한 기술을 특허·출원했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플래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휴대형 단말기에 전자플래너를 접목시키는 임베디드 S/W 기술은 휴대형 학습 단말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학습관리, 정신관리, 행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다.

주요 사업은 전자플래너 솔루션을 이용한 콘텐츠와 e러닝이며 학습 컨설팅과 관련 도서 출판을 병행한다. 오는 4월 전자플래너 단말기 출시와 함께 관련 서적도 출판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에듀나비코리아에서 개발한 전자플래너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종이 플래너와 달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기능을 제공하여 자신의 성과를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이 제품은 학습자 개인의 목표와 계획을 쉽게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 후 평가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불명확한 90%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전자플래너를 통하여 무한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고객 스스로 학습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교육정보기업 만들 것

이 대표는 전자플래너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자 학습관리 솔루션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이 플래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말기형 플래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에 따라 실천하며, 실천 결과의 피드백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직접하기는 어렵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스로 학습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도와 줌으로 그들의 행복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 대표,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창시절부터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e-러닝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21세기 교육정보사업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발전 방향이 무궁무진합니다. 작지만 독특한 아이디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네트워크와 연결한다면 얼마든지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듀나비코리아의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교육정보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표. 향후에는 e러닝 자기주도 학습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전자플래너의 중국어, 일어, 영어 Version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에듀나비코리아 이정일(좌측에서 세 번째) 대표는 사업 첫 해인 올해 전자플래너 단말기 보급과 웹 서비스를 최우선 주력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사업이 추후에 e러닝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